

실로암 한인침례교회

Siloam Korean Baptist Church

May 10, 2026, 10:30 a.m.

부활절 여섯번째 주일 (Year A)

Sixth Sunday of Easter (Year A)



Immanuel Baptist Church

69 Saunders Road, Newport News, VA 23601

담임목사 장선욱 Senior Pastor Sean Chang, 757-867-8676

seanchang78@gmail.com

www.siloamkbc.org

모임 안내 Gatherings

주일 예배 Lord's Day Worship Service (Korean/English) 10:30 am
수요 성경 공부 Wednesday Bible Study (Korean) 8:00 pm via Zoom
Zoom Meeting ID: 401 799 0718

예배 순서 WORSHIP ORDER

예배 인도자 Presider

I 모이기 Gathering

교회 소식 Life of the Church 인도자 Presider

예배 기도 Invocation..... 인도자 Presider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019 찬송하는 소리 있어 Hark, Ten Thousand Harps and Voices

C1027 주님 곁으로 날 이끄소서 Draw Me Close to You

C1165 여호와와의 유월절 The Lord's Passover

신앙 고백 Affirmation of Faith다같이 All Together

삶을 뒤돌아보기 Time to Reflect다같이 All Together

평화의 나눔 Sharing Peace다같이 All Together

중보 기도 Intercessory Prayers다같이 All Together

주기도문 The Lord's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I 말씀 The Word

성경 봉독 Scripture Reading.....다같이 All Together

요한복음 John 14:15-21

설교 Serm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고아처럼 버려두지 아니하시리라 I will not leave you as orphans.

III 화답 Response

찬양 Let's Praise!다같이 All Together

H210 시온성과 같은 교회 Glorious Things of Thee Are Spoken

헌금 기도 Offering Prayer.....다같이 All Together

IV 파송 Sending

파송 및 축도 Sending Word and Benediction.....장선욱 목사 Pastor Sean Chang

교회 소식 THE LIFE OF THE CHURCH

- 오늘 아래의 안건으로 임시 신도사무총회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 필요한 부서 창설

기도 제목 THE PRAYER LIST

- 사도행전 2 장과 같은 교회가 되도록
 - 지역 봉사를 감당하는 교회
 - 보내는 선교를 감당하는 교회
 - 세상의 희망이 되는 교회
- 선교사들을 위하여
 - 조동천 (캄보디아)
 - 이낙원 (케냐) 우리가 지원하는 아이들입니다. Fabian Kamau Eunice Wanjiku Allysa Wambui Sharlin Akai
- 주위에 어려운 일을 당한 분들을 위하여
- 주위에 아픈 분과 돌보시는 분들을 위하여
- 자녀들을 위하여
- 여행하는 분들을 위하여
- 권세자들을 위하여

THE FIRST LESSON 사도행전 ACTS 17:22-31

- 22 바울이 아레오바고 가운데 서서 말하되 아덴 사람들이 너희를 보니 범사에 종교심이 많도다
23 내가 두루 다니며 너희가 원하는 것들을 보다가 알지 못하는 신에게라고 새긴 단도 보았으니 그런즉 너희가 알지 못하고 원하는 그것을 내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24 우주와 그 가운데 있는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께서는 천지의 주재시니 손으로 지은 전에 계시지 아니하시고
25 또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사람의 손으로 섬김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니 이는 만민에게 생명과 호흡과 만물을 친히 주시는 이심이라
26 인류의 모든 족속을 한 혈통으로 만드사 온 땅에 살게 하시고 그들의 연대를 정하시며 거주의 경계를 한정하셨으니
27 이는 사람으로 혹 하나님을 더듬어 찾아 발견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그는 우리 각 사람에게서 멀리 계시지 아니하도다
28 우리가 그를 힘입어 살며 기동하며 존재하느니라 너희 시인 중 어떤 사람들의 말과 같이 우리가 그의 소생이라 하니
29 이와 같이 하나님의 소생이 되었은즉 하나님을 금이나 은이나 돌에다 사람의 기술과 고안으로 새긴 것들과 같이 여길 것이 아니니라
30 알지 못하던 시대에는 하나님이 간과하셨거니와 이제는 어디든지 사람에게 다 명하사 회개하라 하셨으니
31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시편 PSALM 66:8-20

- 8 만민들아 우리 하나님을 송축하며 그의 찬양 소리를 들리게 할지어다
9 그는 우리 영혼을 살려 두시고 우리의 실족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는 주시로다
10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11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매어 두셨으며
12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사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13 내가 번제물을 가지고 주의 집에 들어가서 나의 서원을 주께 갹으리니
14 이는 내 입술이 낸 것이요 내 환난 때에 내 입이 말한 것이니이다
15 내가 숫양의 향기와 함께 살진 것으로 주께 번제를 드리며 수소와 염소를 드리리이다 (셀라)
16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너희들이 다 와서 들으라 하나님이 나의 영혼을 위하여 행하신 일을 내가 선포하리로다
17 내가 나의 입으로 그에게 부르짖으며 나의 혀로 높이 찬송하였도다

18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19 그러나 하나님께서 실로 들으셨음이여 내 기도 소리에 귀를 기울이셨도다
20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기도를 물리치지 아니하시고 그의 인자하심을 내게서 거두지도
아니하셨도다

THE SECOND LESSON 베드로 전서 1 PETER 3:13-22

13 또 너희가 열심으로 선을 행하면 누가 너희를 해하리요
14 그러나 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면 복 있는 자니 그들이 두려워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며 근심하지 말고
15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16 선한 양심을 가지라 이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너희의 선행을 욕하는 자들로 그 비방하는 일에 부끄러움을
당하게 하려 함이라
17 선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이 하나님의 뜻일진대 악을 행함으로 고난 받는 것보다 나으니라
18 그리스도께서도 단번에 죄를 위하여 죽으사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셨으니 이는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려 하심이라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으셨으니
19 그가 또한 영으로 가서 옥에 있는 영들에게 선포하시니라
20 그들은 전에 노아의 날 방주를 준비할 동안 하나님이 오래 참고 기다리실 때에 복종하지 아니하던
자들이라 방주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명뿐이니 겨우 여덟 명이라
21 물은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너희를 구원하는 표니 곧 세례라 이는 육체의
더러운 것을 제하여 버림이 아니요 하나님을 향한 선한 양심의 간구니라
22 그는 하늘에 오르사 하나님 우편에 계시니 천사들과 권세들과 능력들이 그에게 복종하느니라

서신서 성경 공부

본문 함께 살펴보기

오늘의 본문인 베드로전서 3:13-22 은 고난 가운데 있는 초대 교회 성도들을 향한 격려와 소망의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사회적 소외와 핍박을 겪고 있었으나, 베드로는 단순히 고난을 견디는 것을 넘어, 그 고난을 통해 그리스도의 성품을 드러내고 복음을 증거할 기회로 삼으라고 권면합니다. 특히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라"는 말씀은 신앙인의 자세를 명확히 제시합니다.

또한 베드로는 그리스도께서 친히 겪으신 고난과 승리를 제시하며 성도들에게 신학적 근거를 제공합니다. 예수님께서서는 의인으로서 불의한 자를 대신하여 죽으심으로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셨습니다. 이는

성도가 겪는 부당한 고난이 결코 헛되지 않으며, 그리스도의 발자취를 따르는 영광스러운 과정임을 일깨워 줍니다.

마지막으로 본문은 노아의 방주와 세례를 연결하여 구원의 확실성을 강조합니다. 물은 심판의 도구였으나 노아의 가족에게는 구원의 통로가 되었듯, 이제 세례는 육체의 더러움을 씻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힘입어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해 찾아가는 것임을 선포하며 승리를 확신하게 합니다.

말씀 속에 담긴 믿음의 주제들

1. 고난 속의 소망과 변증 (Hope and Apologetics in Suffering)

베드로는 그리스도인의 소망이 고난 속에서 더욱 빛나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세상은 이해할 수 없는 평안과 확신을 가진 신자들에게 그 이유를 묻게 될 것입니다. 이때 성도는 논쟁이 아닌 '온유와 두려움(경외)'으로 복음을 설명할 준비가 되어 있어야 합니다. 이는 지적인 답변을 넘어, 삶으로 증명되는 신앙의 태도를 의미합니다.

2. 대속적 고난의 모범 (The Exemplary Substitutionary Suffering)

본문의 핵심 신학은 그리스도의 '단번의 죽으심'입니다. 의인이신 그리스도께서 불의한 우리를 위해 고난받으심은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가 의를 위해 고난받는 것은 그리스도의 사역에 동참하는 것이며,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나 영으로는 살리심을 얻는 그리스도의 승리가 우리의 것이 됨을 확증합니다.

3. 세례와 선한 양심의 응답 (Baptism and the Response of a Good Conscience)

세례는 단순히 외적인 의식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부활을 통해 하나님과 맺은 언약적 관계의 시작입니다. 베드로는 세례를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이라 정의합니다. 이는 구원받은 자가 이제 자신의 욕망이 아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거룩한 의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의 방향 전환을 의미합니다.

우리의 삶과 신앙 돌아보기

오늘날 우리가 겪는 고난은 초대 교회와 같은 박해는 아닐지라도, 진리를 따르기 위해 감수해야 하는 사회적 불이익이나 오해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부당한 상황 앞에서 분노하기보다, 오히려 그 상황을 통해 "왜 당신은 그런 상황에서도 평안합니까?"라는 질문을 이끌어낼 만큼의 거룩한 삶을 살고 있는지 돌아보아야 합니다.

또한 우리의 변증(Apologetics)이 혹시 상대방을 굴복시키려는 지적 교만은 아니었는지 성찰해야 합니다. 베드로가 강조한 '온유와 두려움'은 상대에 대한 존중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입니다. 진리는 말의 화려함이 아니라, 고난 속에서도 잃지 않는 품격과 사랑을 통해 가장 강력하게 전달됩니다.

마지막으로, '선한 양심'으로 하나님을 찾아가고 있는지 자문해 봅시다. 세례를 받은 자로서 우리의 매일은 하나님을 향한 거룩한 열망으로 채워져야 합니다. 세상의 물결에 휩쓸리는 것이 아니라, 노아의 방주처럼 그리스도 안에 머물며 부활의 소망을 붙들고 있는지 점검해야 할 때입니다.

함께 나누기 위한 질문들

1. 누군가 당신에게 "당신이 가진 소망의 이유가 무엇입니까?"라고 묻는다면, 당신은 무엇이라 대답하시겠습니까?
2. '의를 위하여 고난받는 것'과 '자신의 잘못으로 고난받는 것'의 차이를 실제 경험을 통해 나누어 봅시다.
3. '선한 양심이 하나님을 향하여 찾아가는 것'은 우리의 일상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으로 나타날까요?

실천을 위한 실행 계획

Day 1 [월]: 베드로전서 3:13-22 을 세 번 천천히 묵독하며 내 마음에 머무는 단어를 기록하기.

Day 2 [화]: 내가 가진 소망의 핵심(복음)을 1분 내외로 설명할 수 있도록 글로 정리해 보기.

Day 3 [수]: 오늘 하루 만나는 사람들에게 '온유와 존중'의 태도로 대하며 그리스도의 품격 나타내기.

Day 4 [목]: 내 양심에 거리끼는 것이 있는지 살피고, 하나님 앞에 정직하게 회개하며 '선한 양심' 회복하기.

Day 5 [금]: 고난 중에 있는 이웃이나 동료를 위해 기도하고, 그들에게 소망의 편지나 격려 전하기.

마무리 목상과 공동의 기도

"오직 너희 마음에 그리스도를 주로 삼아 거룩하게 하고 너희 속에 있는 소망에 관한 이유를 묻는 자에게는 대답할 것을 항상 준비하되 온유와 두려움으로 하고" (베드로전서 3:15, KRV)

사랑의 하나님, 고난 가운데서도 우리를 하나님께로 인도하시기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리스도를 목상합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소외되거나 오해받을 때에도 비굴해지지 않게 하시고, 오히려 우리 안에 계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당당하며 온유하게 하옵소서. 우리의 입술과 삶이 주님이 주신 소망을 증거하는 통로가 되게 하시고, 날마다 선한 양심으로 주를 갈망하게 하옵소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THE GOSPEL 요한복음 JOHN 14:15-21

15 너희가 나를 사랑하면 나의 계명을 지키리라

16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17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심이요 또 너희 속에 계시겠음이라

18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19 조금 있으면 세상은 다시 나를 보지 못할 것이로되 너희는 나를 보리니 이는 내가 살아 있고 너희도 살아 있겠음이라

20 그 날에는 내가 아버지 안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너희가 알리라

21 나의 계명을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